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9년 9월 10일 화요일 (음 8월 12일) 제2371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태풍 '링링' 피해 신속 복구에 총력

도내 45건 피해 발생… 송 지사 "도민 불편 최소화 해야"

제13호 태풍 '링링'이 지난 8일 오전 9시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서쪽 160㎞에서 소멸된 가운데, 전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함께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도내에 45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시설은 도로시설물 파손 3건 등 9건, 사유시설은 주택파손 12동(전파 1, 지붕 11), 벼 도복 1,471ha 등 36건으로 집계되었고, 주택 파손으로 인한 이재민 2명 등이다.

지난 8일, 송하진 지사는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피해상황과 복구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농작물 등 피해가 도 전역에 발생함에 따라 추석 전 응급복구 및 복구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또 농작물 보험가입 농가에 대하여 추석 전 보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농작물 피해조사 및 보험가입자의 피해신고를 독려토록 지시했다.

송하진 지사는 "사유시설 피해자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시군 예비비 등을 활용해 복구비용을 신속 지급토록 하라"며 "신고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가 피해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위로,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추석 전까지 태풍의 흔적을 모두 지워 주민들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추석을 날 수 있도록 피해조사와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아쿠아 디지털 트윈 구축 포럼 창립총회

실제 양식현장과 똑같은 가상현실을 컴퓨터 속에 만들어 양식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테스트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성장 조건을 도출해 양식현장에 실시간 반영하는 기술인 '아쿠아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창립총회가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곽병선 군산대학교 총장 및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주 월드컵경기장 일대, '종합 스포츠 타운'으로

시, 실내체육관 신축
종합경기장 등 이전 추진

전주 월드컵경기장 일대가 기존 축구장에 육상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이 집적화된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조성된다.

시는 기존 전북대학교 앞 실내체육관을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신축 이전하고,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도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이 일대를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오는 2023년 말까지 총 522억원을 투입해 건축된 지 45년이 지나 낡고 협소한 전주실내체육관을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글로벌 규격으로 신축할 계획이다.

신축되는 실내체육관은 대지면적 2만3400㎡, 연면적 1만5940㎡에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5000석의 관람석과 248대의 주차공간을 갖추게 된다.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변 육상경기장·야구장 조감도.

또한 시는 월드컵경기장 인근 12만2958㎡ 부지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900억원을 투입해 전주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인 1만5000석 규모의 1종 육상경기장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도 건립할 계획이다.

육상경기장의 경우 국제 육상경기장을 치를 수 있는 규격을 갖추고, 야구장도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KBO규정에 적합한 수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21년까지 전북혁신도시 일원에 113억원을 투입,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등을 갖춘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서신동 일원에는 국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입해 체육관과 수영장, 헬스장 등을 갖춘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제규모의 축구경기장과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이 집적화되면 월드컵경기장 일대가 대한민국 스포츠산업을 이끌어갈 복합스포츠타운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도내 2020학년도 대입수능 1만9159명 응시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시험은 11월 14일 진행

전북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북에서 총 1만9159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 원서 접수 인원은 2019학년도에 비해 1402명이 감소했고, 재학생 응시자는 1713명 감소한 1만5561명이며, 졸업생은 282명 증가한 3261명, 검정고시 응시자는 29명 증가한 337명이다.

영역별 지원 현황을 보면 국어영역 1만9129명, 수학영역 1만8426명[가형 7241명(37.8%), 나형 1만1185명(58.4%)], 영어영역 1만9042명, 한국사(필수) 1만9159, 탐구영역 1만8558명[사회탐구 9608명(50.1%), 과학탐구 8765명(45.7%), 직업탐구 185명(0.96%)], 제2외국어·한문 2192명(11.4%)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북지역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에 대한 지원 비율은 0.65:1이고 전국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에 대한 지원 비율은 0.47:1로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오는 11월 14일 수능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6개 시험지구 62개 예비시험장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했다. 1차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차 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각 고등학교에 막바지 수시 지원에 따른 대학별고사 준비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대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 신임 정무부지사에 우범기 민주 수석전문위원

전북도는 9일 신임 정무부지사에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내정했다.

우 신임 정무부지사 내정자는 부안 출신으로 해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공직에 입문, 통계청 기획조정관,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문화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U+tv ch.253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